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임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희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 : 양재웅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보혈의 증인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시 119:147)

2007년 신년예배를 통한 주님의 은총에 감격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다시 세상의 그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드렸던 "할렐루야"의 찬송이 어느덧 세상의 짐 때문에 한숨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엡 4:24)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었던 손을 과감히 놓고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을 깨우는 보혈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막 1:35) 새벽에 깊는 우리의 무릎이 바빠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기도회(새벽 5시, 본당)를 통해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매일 예배당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골 4:2)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먼저 낙타무릎이 되십시오. 모든 성도들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혈로 세워진 교회, 보혈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장 내일 새벽부터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채워야 할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단순히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깨어 기도하였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보십시오.(롬 6:6) 이 흔적은 자신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가?'의 흔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가?'의 흔적입니다.(갈 6:17)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각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선교(사명, Mission)를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과 처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골 2:15) 오직 믿음으로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갑시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찬 277장)

2월 교회 일정

4일(주) 3차 CMTC 훈련(1)	13일(화) 대학부 수련회(목요일까지)
7일(수) 충력 교회주변 전도(여전도회, 수요부 예배 후)	17일(토) 외신부 수련회(주일까지)
전도위원회 헌신예배(수요2부 예배 시)	21일(수) 재의 수요일
정기당회(수요2부 예배 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3월 30일 까지)
10일(토) 청년1부 수련회(제1교육관 507호)	23일(금) 1차 청지기훈련(금요찬양집회 시)
충력 교회주변 전도(남전도회, 오후 2시)	25일(주) 1차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시)
11일(주) 3차 CMTC 훈련(2)	28일(수) 청년1부 · 예바다부 수련회(목요일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시다

(갈 2:20)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대답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다. 그의 새 삶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삶인 것이다.(요 4:14)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배경에는 베드로의 기만과 타협이 있었다. 사도행전 10장, 15장에는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행 15:6,7,10,11)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야말로 더욱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목사인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그 자리를 급히 떠났다.(갈 2:12) 이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들도 베드로와 함께 외식하게 되었으며 바나바까지도 이 외식에 유혹되었다.(갈 2:13) 복음에 반대되는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아야 함을 암암리에 말하고 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진리에서 떠나게 된 것이다.(갈 2:19)

베드로가 십자가의 도를 피하여서 질책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고백을 했던 바로 뒤에도 있었다. 그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하셨다.(마 16:17~19) 그런데 베드로는 곧 이어서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을 간구한다.(마 16:22)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며 강하게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부끄러운 길로 갔다. 그런데 베드로의 한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안아주고 품어주며 천국을 예비해주신 것은 좋아하면서 정작 십자가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고전 1:23,2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2:20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진리를 말한다.(갈 2:16~18) 시편 기자도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였다.(시 143:2)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또한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길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으로 인도한다.(갈 3:1, 5:24, 6:14)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다. 대적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드리신 바로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롬 6:13)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내 자신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예한 자들이며(벧후 1:4)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사셨다.(요 5:30)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롬 1:17) 이것에서 벗어난 다른 삶은 곧 죄 안에서 사는 삶이다.(롬 14:23)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롬 12:1,2)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구별되어진 특별한 삶의 특징이다. 마침내 이러한 삶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내 이웃에게까지 흘러들어갈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무한한 보화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다.(엡 5:30 ; 시 23:4) 그러나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히 1:5,6) 오직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만이 새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체험에서 나온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전하는 참 신자가 되길 원한다.(엡 3:16~19)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Sermon for Next Sunday

WHAT IS YOUR CONFESSION?

"For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also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the holy angels." (Mark 8:38)

If this statement is false, no problem, but if it is true then I think a lot of people are in serious trouble. Can you confess boldly, clearly, and simply that Jesus Christ is your Savior and that you are not ashamed of Him? Before you nod your head yes, take a minute to reflect on what Jesus said just prior to this statement. First He stated,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v. 34) Without doubt, it is hard to deny yourself, which is why most people do not do it, but you confess that you love Jesus and believe in Him, so are you denying yourself or denying Jesus? Are you taking the cross or are you taking the easy way? Are you following Jesus or are you following your own opinions? Jesus also declared,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v. 35) Are you still trying to save your life, or are you actually losing it for Jesus and the gospel? Jesus then asked two important questions, "For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F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vv. 36&37) Do you know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Honestly, I do not think most of you do what Jesus asks. Sure, you call Jesus your Savior, but you do not listen or obey His commands. You do not really honor Him, which actually means you dishonor Him. Are you ashamed of Jesus Christ?

This year, we are focusing on building Christ's church. Every member should be seriously examining their faith. Right now, too many church members practice their faith privately. They quietly and humbly believe in Jesus, while non-Christian onlookers quickly and humbly believe they are not Christians! My dear friend, the world hates Jesus Christ. If you proclaim to be a Christian, then you have a lot of people who automatically hate you. Do people hate you? Have you ever bravely confessed that Jesus Christ is your Savior? When Joseph of Arimathea went before Pilate to request Jesus' body, he acted courageously.(Jn. 19:38) Everybody was crazy about killing Jesus at that time, so his life was at stake. He broke the silence, and went public with his faith. Listen, Jesus gives each believer a tremendously wonderful promise. If you recognize Him in front of non-believers, He will recognize you in His glory. Jesus says, "Everyone who confesses Me before men, the Son of Man will confess him also before the angels of God"(Lk. 12:8) How can you confess Jesus Christ publicly?

You can start by using your mouth. Communicating the gospel to others is a public confession. Romans 10:9 says,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Your soul receives salvation through your confession. When you bravely tell non-believers about Jesus they have a chance to accept Him. Peter and John were born again Christians who became wonderful evangelists. They confessed Jesus Christ in front of all Jerusalem, and 3,000 people came to faith. They could not stop speaking about Jesus.(Acts 4:20) They were not ashamed of Jesus Christ. You should never be ashamed of Jesus in public.

Baptism is a public confession of Jesus Christ. After the three thousand souls heard and accepted Peter's gospel testimony, they were baptized.(Acts 2:41) After the Ethiopian eunuch heard Philip's testimony, he was baptized.(Acts 8:38&39) After Ananias healed Paul, he too was baptized(Acts 9:18), and after Peter spoke with Cornelius and his family about Jesus Christ, they all were baptized.(Acts 10:47&48) Baptism is like a shadow of the gospel in public. It is a public confession that symbolizes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Through baptism, others come to know the message of salvation.

Practicing your faith is a public confession. Whether you are working, driving, fighting, or whatever, your life's actions should always confess Jesus Christ. Whoever knows me, knows that I only talk about the gospel. Whoever knows you, do they know that you believe in Jesus Christ because your life shows them? As a true Christian, you are the light in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Everyone should recognize your position, even the animals, because you love souls. You forgive other people. You put others ahead of yourself all the time, and do not issue your own voice. Philippians 2:5~7 say,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My dear friend, I am sincerely asking you to search your heart over life and death issues. Please confess Jesus with your mouth to others. Please confess Jesus through your baptism. Please confess Jesus through the daily practice of your faith. Your public confessions show that you are proud of Jesus Christ. Besides the Lord God, do you know who is most interested in you? Yes, the heavenly angels, but also non-believers. People who do not know Jesus yet are watching you. What is your confession to them?

다음 주일 설교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38)**

김성관 목사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신앙고백

이 성경 말씀이 틀린 말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 반대로 정말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대하고도 단순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쉬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35) 아직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6,37)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중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올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매우 많은 교인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켜보는 불신자들은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한다면 즉각적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용기있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요 19:38)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을 깨고 공중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지극히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곧 불신자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를 시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눅 12:8) 예수님께 대한 당신의 신앙고백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9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은 참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듭남으로써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결과 3천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행 4:20)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듣고 받아들인 3천 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2:41)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의 증거를 듣고 난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8:38,39)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친 후 바울 역시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9:18)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을 때 그들 또한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10:47,48) 세례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상징하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세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하든지, 운전하든지, 심지어 싸우는 중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제가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빌립보서 2:5~7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증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수요1부 예배 메시지(2007.1.24.)

갈렙의 지도력 (민수기 13:30,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민 13:1)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내려진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민 13:2) 이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여 각 지파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다. 가나안의 정탐은 지역의 특성상 쉽지 않았다.(민 13:17) 그럼에도 12명의 종들은 정탐 임무(민 13:18,19)를 성실히 감당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였다.(민 13:27~29)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자들은 가나안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현실만을 보려고 한다. 보혈의 은총을 주신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현실의 압박에만 힘들어 한숨 짓고 있다. 그런데 현실 앞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였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 13:30)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보고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민 13:31)는 정탐자들의 보고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갈렙은 큰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을 안정시켰다. 그는 현실이 아닌 지금껏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였다. 고센 땅에 가득했던 어린 양의 피, 홍해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때마다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처럼 현실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시 133:1)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자.(행 1:14) 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자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철야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민 14:1)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세상적인 안위를 위한 것뿐이었다.(민 14:2~4) 어쩌면 이스라엘이 기도 후에 내린 결론이 타당할 수도 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기도 후에 취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도 없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찬 383장) 성령님이 주신 믿음의 기도로 하나가 되자. 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행 4:31,32)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처한 형편에 관계없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갈렙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자칫 흥분한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담대히 전하였다.(사 40:31) 우리의 지식,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매순간 주님께 기도하자. 한 걸음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자. 은총으로만 갈 수 있는 영원한 성,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손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는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의심도 없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현실을 보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뿐이었다. 정탐자들은 가나안 땅에 취한 열매를 가지고 왔다.(민 13:24) 이같은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땅에서 그 소산물들을 취하여 나누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갈렙은 말하였다. 우리도 갈렙의 걸음에 동참해야 한다.(민 14:9)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자. 믿음으로 이 추수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 가는 곳마다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하다.(요 4:35)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 주변에는 추수할 곳이 매우 많다. 이곳을 향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4:36)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자.

믿음의 보고를 하는 갈렙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지려 했다.(민 14:10) 마찬가지로 추수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지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평안)을 주실 것이다.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쌀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라! 갈렙은 영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기대하였기에 위축당하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세상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 참으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죄의 밤은 깊어가고 있다.(찬 276장)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 이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주님의 교회는 죄인들을 통하여 세워진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신자들을 통하여 세워진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 경험을 내세우며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말고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전도가 계속되길 원한다. "충현의 십자가 군병들이여! 주 위해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찬 390장) 아멘.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위원회

강철형 (장로, 전도위원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진정 전도하는 전도위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 앞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 28:18)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지렁이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좇으며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중요시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무시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사오니"(눅 15:18)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어놓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우리의 본분인 뭇 영혼이 구원 얻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죄악이 가득한 교회 주변을 흔들어 소동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온 교회가 1인 1명을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킬 것을 목표로 정하고 충현전도훈련원에서 전도훈련을 받은 충현전도대가 매주 수요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여전도회 중심으로 총력 교회주변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교회 주변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충현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어느 누구나 각 교구 지회별 전도회 회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총력 교회 주변 전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고백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CMTC 훈련 메시지 ❹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사역지 선정 국가가 결정된 후 지역 선정은 선교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미 한 번 이상 다녀온 지역은 선교위원회에서 경험자들의 이야기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자세한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교회에서 정탐을 하지 않은 지역은 사전에 정보를 파악한 뒤에 가야 한다. 선교위원회는 대상 국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파송되는 팀에게 제공한다.

팀 구성 및 준비 팀원의 자격은 교회 등록 후 만 1년이 지난 자(세례교인으로 부서장 추천), 공집회 출석 및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부서장 추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법적), 신체에 질병이나 이상이 없는 자(건강진단서:당해연도 발급, 2007년도 1·2월 출발팀은 2006년 5월 이후 발급된 건강진단서 유효), CMTC 및 팀 훈련을 마친 자(면접심사 통과자), 1인 1명 이상 전도한 자(2006. 9. 1. 이후 소급 적용),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자. 타교인이 단기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회의 당회장 추천으로 CMTC와 팀 훈련에 참석하여야 한다.

선교 항공기 출발 시간에 따라 오전 출발팀은 5시간 전에, 오후 출발팀은 6시간 전에 파송예배를 드리니 예배 시간을 선교위원회에서 확인한다. 전도지는 사전에 인수하여 분산하며 모든 짐은 팀별로 구분이 가능한 리본을 부착하여 출발예배 전에 미리 버스에 실어서 예배 후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지사역 중 선교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사역지 도착 시에 도착보고, 귀국 시에 귀국보고만 선교위원회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국제통화를 자제하고 개인전화는 철저히 금한다. 같은 국가에 2개 팀 이상이 동시 출발하는 경우에는 사역지 공항 도착 즉시 숙소, 식사, 차량 등 각 팀별로 행동한다. 숙소를 이동하여 사역하지 말고, 수도에서는 경유 목적 외에는 숙소나 사역지로 정하지 않는다. 선교의 전과정에 개인 활동은 삼가고 선교에만 전념한다.

선교 후 선교를 마친 후에는 금요찬양집회 사역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를 온전히 준비하여야 한다. 금요찬양집회 종료 후 본당에서 실시하는 귀국환영회와 기도회에 팀 전원이 참석한다. 귀국 후 3회 이상 선교기도회에 참석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을 위하여 기도한다. 사역 후 평가 일시는 팀별로 개별 통보한다.

(선교위원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휴가 기간에도 출장을 다닐 정도로 시간 내기가 힘든 현실을 방패삼아 나는 선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을 오히려 당당해하며 살았다. 장모님과 어머님이 선교를 다녀오시고 아내가 다녀와도 '내가 가야 한다'거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일 년을 보낸 뒤에야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핑계거리를 찾지 못하던 나는 지난 해 가정예배 때에 약속한 바도 있어 별 기대없이 선교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선교훈련은 쉽지 않았다. 훈련 기간 내내 강조하는 것이 '자기부인'이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 모든 진행 상황,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100%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자기부인'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각은 '순종'이었다. 다름 아닌 팀장에게 순종, 총무에게 순종, 다른 팀원들에게 순종하는 일이었다. 나는 선교를 출발하고 도착할 때까지 나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하였다. 시키는대로 하고, 주는대로 먹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해 보니 이 사소한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방 알게 되었다.

주님은 내게 두 가지를 회개하게 하셨다. 하나는 그 동안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지 회개하게 하셨다. 사소한 것들조차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어찌 크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방법론적인 문제로 본질과 핵심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였다. 왼쪽에 있는 마을을 전도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마을을 전도하거나, 호텔에서 자거나 노숙을 하거나, 한 마을 전체를 전도하거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하는 마음을 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전하였는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행하였는가?'라는 점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다. 비단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만이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욜해 어떤 모습으로 교회생활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변성주(집사, 청년2부)

선교를 떠나기 전, 보혈의 증인들이 남긴 믿음의 고백!

대학부 6팀(1월 22일~1월 30일)

❖ 어떤 영혼이든지 눈물과 열정으로 만나고 순교하는 것 또한 주님의 뜻이고 영광을 위해서라면 각오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우)*

❖ 스데반의 순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일에는 일꾼과 증인이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비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각오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황예리)*

❖ 이 죄인을 주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떠한 사고로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권지현)*

❖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해도 난 주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상욱)*

❖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다시 살았습니다.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선교지! 그곳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손창어)*

❖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선교를 가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 예수님만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 름)*

❖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죽음일찌라도 이 한 몸 다 바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권덕용)*

❖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생명을 증거하며 순교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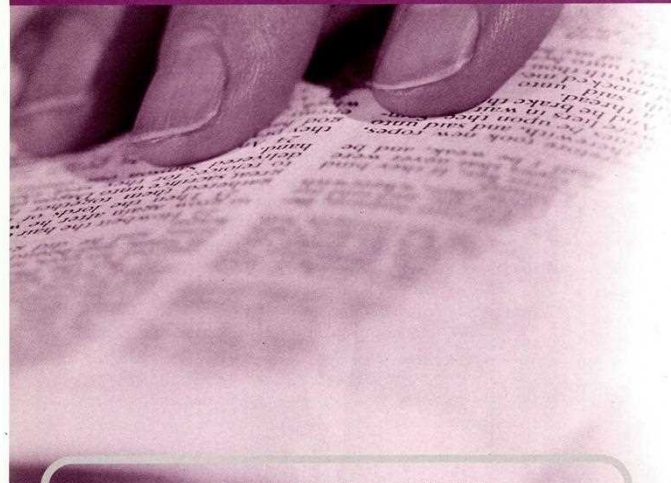
(구원섭 안수집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대학부 3팀	한현석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2팀	이영환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3팀	김대웅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4팀	오순도
1월 16일(화) ~ 1월 24일(수)	탁아부 1팀	정원근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등1부 1팀	전은배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등1부 2팀	이보신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등1부 3팀	양한원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등3부 1팀	한 숙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등3부 2팀	박석산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고등부 1팀	김영환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고등부 2팀	이양선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고등부 3팀	김현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대학부 6팀	구원섭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외선부 1팀	김윤환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직원 1팀	김황진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할렐루야찬양대 1팀	박상대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1팀	이희우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2팀	최세진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5팀	김신국



우리 가정의 기초는 성경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이 말씀은 항상 저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이 저희 가정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3년 전, 군에 입대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들에게서 소포를 받았습니다. 입고 간 사복이 담긴 꾸러미 속에 급하게 적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힘든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다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때 아들의 책상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책상머리에 붙어 있던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말씀을 들고 입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대하여 돌아온 아들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해 마지막 주일예배 때 위임목사님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사 41:10)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이사야 41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2006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와 2007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경숙(권사, 11교구)

십자가의 낮은 자리에서

부족한 저를 섬김의 자리인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 아니 냄새조차 나지 않는 나, 나 혼자만의 믿음도 매일매일 실패하는 보고서를 드리는 나를 주께서 구역장으로 세워주시니 떨림과 두려움이 엄습하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구하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온전히 내가 부인되게 하시며 십자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셔서 주께서 맡긴 너무나 귀한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지혜 주시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입술로 토설하게 하셔서 새 생명 얻은 이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속에서 샘솟는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붙드셔서 영으로 찬양하는 신실한 찬양과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녀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김한진(집사, 9교구)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새가족부 집회 때마다 제 자신이 새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였지만 생각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 모든 이유가 저의 부족함에 있기에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며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과정은 또 다른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았다면 아마도 저는 교만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새가족들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변화는 새가족부 수료식 때에 있는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라며 울먹이는 새가족들을 보면서 저 역시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겨두신 영혼들을 저의 생각과 열심을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니 2007년 한 해도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제 심령이 가득합니다.(딤후 1:7)

이정화(권사, 새가족 양육부)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 새롭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저를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먹보다 더 검은 죄이고 주홍같이 붉은 죄이었지만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함을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7년 전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의 하셨는 사랑을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7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처음에는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는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제가 마음 아파할 때에 위로하여 주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에 힘이 되어 주셨으며, 제가 울 때에는 눈물을 닦아 주시며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흙같은 우리를 토기장이의 뜻대로 빚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빚음을 받기 위하여 겸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올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임낙준(집사, 13교구)

비로소 깨닫고 회개했다!

벌써 열네 번째 겨울 성경학교를 맞았다. 지금까지 나의 성경학교를 돌아보면 단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 성경학교에 오면 예배드리고 간식 먹고 친구들과 놀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한 뒤 집으로 가는 것이 전부였다. 가끔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말씀의 감동이 없었다. 부끄럽지만 그 동안 나에게 성경학교는 "놀이터"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정말 제대로 배우고 깨달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참된 터라는 것이었다. 그 동안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크다! 건물도 많고 땅도 넓다!" 교회에 대한 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크기였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야 비로소 깨달았고 회개했다. '정말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처럼 모든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 충현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우빈(중등1부)

몸 안을 은혜로 가득 채우신 성령님

학생회 임원으로서 이번 겨울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선교 준비도 한창 진행 중이어서 수련회 준비 모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수련회 프로그램과 일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련회 하루 전에 이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그 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모두 내려놓으며 다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수련회 당일, 기도원에 도착하니 몸을 씻어주는 듯 맑고 차가운 공기가 반겨주었습니다. 하루 하루 주님은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은혜로 충만했던 때는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정말 은혜로만 가득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낯설어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했지만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점점 기도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찬송 한 구절마다가시가 되어 저의 가슴에 박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돌아오오"라는 찬송이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사실 제가 수련회 둘째 날 몸살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집회 때 방에서 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신다오"라는 가사가 떠오르며 집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지쳐서 힘들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데 도저히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 밤이었고 정말 목이 쉬어서 아파도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님께 만나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구별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데 제가 항상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생각나며 저절로 회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 기진맥진했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저의 몸 안에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김태민(고등부)

나의 예수님과 전도 이야기

저는 지금까지 세 명의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주일에 일찍 간다는 것을 귀찮아하는 친구여서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다른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늦잠과 놀러가는 것 때문에 출석이 들쑥날쑥한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 다녀서 가까운 우리교회로 전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꺼려하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저는 주일 아침마다 친구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었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준비해서 나와 주곤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고 계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오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 자주 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혼자서 성경찬송을 가져다가 교회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예수님이 제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의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따뜻하시고 친구 같기도 하시고 때로는 조금 무섭기도 한 주님. 전도를 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참을성을 길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박한나(소년부)

수화 칼럼 ❶

"손으로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육신의 장애가 구원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바다부를 중심으로 농아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막 16:15) 그런데 농아인을 위한 선교는 이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기에 손으로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1. 예수님

동작 설명

양손 바닥의 못자국을 가리키는 동작. 손끝이 밖으로 향한 왼손 바닥에 오른손의 2지를 댔다가, 손끝이 밖으로 향한 오른손 바닥에 왼손의 2지를 댄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손바닥에 올려놓는다.

2. 십자가

동작 설명

5지와 1,2,3,4지를 벌린 오른손으로 '+'자를 그린다.

3. 복음

동작 설명

오른손의 1,2,3,4지 바닥은 왼쪽 볼에 5지 바닥은 오른쪽 볼에 댔다가 내리며 손가락을 모아 붙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구부리고 그 끝으로 오른쪽 귓구멍을 두 번 가리킨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9	김만섭	19	대학부	이지연(19)
120	김준섭	19	대학부	이지연(19)
121	최부길	4	장년2부	박원희(4)
122	김종민	4	장년2부	정운출(18)
123	송지현	4	청년2부	이순재(18)
124	이정혜	1	장년2부	유정자(8)
125	이찬행	18	장년1부	왕인숙(18)
126	왕순복	18	장년1부	
127	김대황	2	청년1부	김위자(13)
128	박동식	14	청년2부	장봉순(12)
129	안광섭	19	고등부	김숙자(7)
130	김하나	19	청년1부	박민호(18)
131	진기연	19	대학부	강임구(1)
132	박진수	19	청년1부	안준모(15)
133	조필원	15	장년1부	성대열(16)
134	서미숙	15	장년1부	이정화(16)
135	김한배	7	소망부	김종수(7)
136	페리	19	외선부	박삼성(4)
137	발렌디나	19	외선부	
138	이리나	19	외선부	
139	안드레히	19	외선부	
140	유엘레나	19	외선부	
141	김이브로라	19	외선부	
142	조영원	10	장년2부	이세희
143	방성제	19	중등3부	윤민재(16)
144	김경희	4	사랑부	이순옥(17)
145	조성준	1	장년1부	
146	박순녀	1	소망부	정희선(1)
147	김태호	19	청년1부	박노익(17)
148	최성득	1	교역자	
149	나경수	1		
150	김원수	1	교역자	
151	김영심	1		
152	탁정원	1	교역자	
153	정애정	1		
154	황동준	19	청년1부	
155	심재경	19	청년1부	박영서(6)
156	박민령	19	청년1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 임

1. 권사 총동원 집회
   일 시 : 31일(수), 1부예배 후
   장 소 : 갈릴리홀

2. 남녀전도부 전도회장 지구별 월례회
   일 시 : 28일(오늘) 15:10
   장 소 : 1지구 : 제1교육관 401호(1,2,3,4교구)
   2지구 : 제1교육관 408호(5,6,7,8,9교구)
   3지구 : 제1교육관 409호(10,11,12,13,14교구)
   4지구 : 제1교육관 405호(15,16,17,18교구)

별 세

1. 이상배 타교성도(이종심 집사의 부친, 이기봉 집사의 장인, 6교구 해미리1구역) / 20일 별세, 22일 장례
2. 정세용 집사(이영순 권사의 남편, 정구형 성도의 부친, 12교구 중산구역) / 22일 별세, 24일 장례
3. 서상옥 은퇴권사(권혜진 권찰의 모친, 10교구 상계4구역) / 24일 별세, 25일 장례
4. 김기정 원로장로(이정숙 은퇴권사의 남편, 김덕호 집사의 부친, 이옥순 집사의 시부, 15교구 관악드림구역, 3교구) / 25일 별세, 27일 장례

결 혼

1. 유 철 군(유기열 집사, 김정란 권사의 아들, 9교구)과 진은영 양(진태원 집사, 고송이 집사의 딸, 명선교회) / 2월 1일(목) 오후 3시 갈릴리홀
2. 조철현 군(조만수 목사, 이성애 사모의 아들, 부산중앙감리교회)과 유지성 양(유국현 목사, 오윤숙 집사의 딸, 12교구, 기드온교회) / 2월 3일(토) 오후 2시 30분, 주님의교회 김마리아회관 중강당(정신여고 내)
3. 김태형 군(오순자 집사의 아들, 10교구)과 조현숙 양(조건호 씨, 권정심 성도의 딸, 19교구) / 2월 3일(토) 오후 3시 30분 삼성화재본관

◆ 전도위원회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 2007년 1월 7일(주일)~1월 28일(오늘)
대상 기간 : 2006년 7월~12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403호)
준비 서류 : 시산표 1부(2006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 수화교실 개강

1월 28일(오늘)~5월 13일(주일), 매주일 오후 3시~4시 20분,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 권사회 찬양연습

1월 21일(주일)~3월 25일(주일), 매주일 오후 3시~4시, 갈릴리홀

◆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 2월 7일(수), 1부예배 후 남전도회 : 2월 10일(토), 오후 2시
장 소 : 여전도회 :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남전도회 : 1지구(1,2,3,4교구)-301호 2지구(5,6,7,8,9교구)-307호
3지구(10,11,12,13,14교구)-401호 4지구(15,16,17,18교구)-407호

◆ 대학부 수련회

일 시 : 2월 13일(화)~15일(목) 장 소 : 충현기도원

◆ 장년1부 수련회

일 시 : 2월 10일(토) 14:00~19:00 장 소 : 제1교육관 207호

1월 충현 기도의 창

1.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2.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3.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4.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6.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은총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소서.
7.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여 지게 하소서.

2007년 제3차 CMTC 훈련 (교육과정 : 2주간 장소 : 갈릴리홀)

시 간	2월 4일(다음 주일)
18:10-18:40	제1강 사도행전의 선교
18:40-19:10	제2강 2007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향
시 간	2월 11일(주일)
18:10-18:40	제3강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18:40-19:10	제4강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교회직원(촉탁직) 모집

1.모집부문 경비직 2.자 격 세례교인, 65세 이하
3.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552-8200(내선 403)

충현어린이집 교사 모집

1.모집부문 어린이집 정교사 및 보조교사
2.자 격 세례교인 이상, 정규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전공자
3.문 의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어린이집 ☎554-7054

2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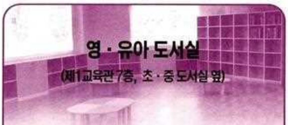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안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2	4	오순도	김단용	차신득	김승곤	임창식	이인광	노순옥	강철형
	11	양기수	이계인	박홍규	원웅철	김중선	김철환	정은희	금호순
	18	김태식	함철주	최윤덕	윤석민	조종환	지규성	오정림	김승옥
	25	정청길	박덕양	권명옥	신광철	정선현	송두섭	박태순	이창순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29 (월)	1/30 (화)	1/31 (수)	2/1 (목)	2/2 (금)	2/3 (토)	2/4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전계식	이용진/김해길	양태선/신전수	유현철/권오준	류병회/심화민	여국근/김정연	전성원/강덕필

예배담당 안내 (1/31-2/4)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1/31	수요 I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가! (빌 1:3-6) 김성관 목사	임현덕	김성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 (호산나 찬양대)
1/31	수요 II	그리스도인의 직무 (롬 13:11-14) 이성진 목사	유현철	권정자	어둔 밤 쉬 되리니 (실로암 찬양대)
2/2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강명구		예루살렘 찬양대 / 비올라 김혜진 / 소프라노 김희연
2/4	주일 I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막 8:38) 유재진 목사	유현철	오순도	〈예배 전 찬양〉
2/4	주일 II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막 8:38) 김성관 목사	윤수일	김단용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외 / 소프라노 김희영(임마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2/4	주일 III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막 8:38) 김성관 목사	여국근	차신득	나 어느 날 꿈 속을 헤매며 외 / 바이올린 박 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2/4	주일 IV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막 8:38) 하종철 목사	안창덕	김승곤	이 세상 끝날까지 외 / 할렐루야 혼성중창단(지도 : 이수진)
2/4	주일 V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막 8:38) 김준희 목사	강명구	임창식	아침 해가 돋을 때 외 / 플룻 김은지(벧엘 오케스트라)
2/4	주일찬양	죽음 그 이후 (눅 16:19-31) 임현덕 목사	김철규	이인광	만도린 연주대 / 할렐루야 찬양대



0~7세까지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성경과 신앙도서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온돌 바닥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오셔야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들을 위한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5-5472)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4:10 (금) 저녁 6:30-저녁 9:0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 현 복 지 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김은호 인사위원	노광헌 당회서기	이병학 시렴부장	이 훈 예배위원장	남선우 에바다부장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최무길 감사위원	이창호 예배위원	차신득 선교위원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찬양위원장	임무천 16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교구위원장	이정우 봉사위원
김단용 당회부서기	한송규 예배위원	김영수 동산부장	김환기 기획위원장	원웅철 기획위원
이형수 예배위원	안동현 예배위원	황의만 예배위원	김구형 고등부장	최윤덕 예배위원
이계인 실로암찬양대장	박덕양 10교구장	이태식 청년1부장	정태두 선교위원	박홍규 감사위원장
권명옥 봉사위원장	조종환 제1교육위원장	배춘식 차량안내부장	김영달 2교구장	이실호 기도원관리부장
최지윤 시설영선부장	노영한 장년3부장	박철구 차량안내차장	정청길 13교구장	신상수 14교구장
고제승 6교구장	강철형 전도위원장	김영은 기획위원	이달옥 영아부장	장철환 중등3부장
김승곤 탁아부장	함철주 12교구장	윤석민 기획위원	정선현 제2교육위원장	안석현 3교구장
김연근 건축위원장	김창국 유년부장	김중선 8교구장	임창식 임마누엘찬양대장	김은철 재정위원
전학래 18교구장	김신국 1교구장	전계식 재정위원	장승규 9교구장	전은배 중등1부장
석영식 11교구장	구재완 청년2부장	송두섭 7교구장	최차용 예배위원	신선길 제3교육위원장
유상태 유아부장	박상대 할렐루야찬양대장	김규석 새가족양육부장	신광철 4교구장	정창수 중등2부장
엄복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이상석 청년1부장	오순도 외선부장	양기수 5교구장	김태식 15교구장

■ 부목사

박인기 에바다부	류병회 1교구	여국근 선교위원회	안창덕 11교구	나광영 17교구
정진호 19교구	고광환 18교구	김익환 2교구	장 훈 3교구	임현덕 7교구
이희식 6교구	최종철 13교구	하종철 5교구	안치원 10교구	정충신 16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성진 15교구	최성규 12교구	이재영 중등3부	이경준 외선부
김준희 8교구	윤수일 9교구	황진섭 14교구	유재진 편집국	강명구 유년부
전성원 중등2부	김철규 청년1부	이용진 청년2부	양태선 중등1부	유성택 소년부
유현철 초등부	탁정헌 고등부	김완수 4교구	최성득	

■ 여전도사

윤인숙 10교구	한영준 소망부	김연식 11교구	홍순애 12교구	이옥주 5교구
김말자 6교구	안태순 18교구	김정연 2교구	강덕필 14교구	최문실 7교구
전은희 16교구	김정자 17교구	김정희 15교구	이복순A 13교구	류진희 대학부
한성임 청년2부	임태주 4교구	강영미 9교구	옥미자 8교구	이복순B 3교구
강호숙 1교구	전영희 고등부	이혜숙 청년1부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 교 사 송요한